

[1~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-2022.09 [18~21]

[앞부분의 줄거리]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,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.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.

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,

“㉠ 여보게, 이 사람. 말씀 물어보세.”

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,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묻는다.

“㉢ 이 사람,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?”

“무슨 말이람나? 양반, 양반, 무슨 양반이야.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.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, 짜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?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? 참 듣기 싫군. 어서 가소.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, 어서 바빠 가시라구!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꽤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?”

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,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.

“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!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면 좋을 것을,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,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!”

하며,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마는,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‘불은 데 불으라’ 하는 말과 같이 ‘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.’ 하여,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.

“㉡ 여보시오,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. 이곳 풍속을 모르고,”

“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?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.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?”

“네,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,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.”

“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,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?”

“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,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,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,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.”

“그러하면 가이없습니다.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,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.”

“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?”

“참 딱한 일이올시다.”

하더니,

“옳지!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.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

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.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, 참 떠나는

지 알 수 없습니다.”

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.

“㉣ 어이, 뱃사공이 누구여?”

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,

“어! 사공은 왜 찾아?”

“말 좀 물어보면…”

“무슨 말?”

“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?”

“물로 가는 배여.”

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‘해라’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,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, 한숨을 휘이 쉬며,

“허!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!”

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,

“여보시오, ㉤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?”

사공은 목낭청*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,

“그렇습니다.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.”

“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?”

“예,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.”

“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.”

“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실는 배가 아니옵고,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,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.”

“그는 그러하겠소마는,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,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,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, 한편 이물 구석에 조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오?”

“당신 정경이 불쌍하오.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,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.”

- 작자 미상, 「배비장전」 -

* 목낭청 :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

1.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‘계집’은 ‘배 비장’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.
- ② ‘배 비장’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‘계집’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.
- ③ ‘계집’은 ‘배 비장’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- ④ ‘사공’은 ‘부인’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.
- ⑤ ‘사공’은 ‘배 비장’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.

2. ㉠~㉡ 중 '배 비장'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?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㉢
 ④ ㉢, ㉣ ⑤ ㉢, ㉣

3.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.
 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.
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.
 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.
 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.

4. 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— <보 기> —

『배비장전』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,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.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?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,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.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,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.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.

- ① '양반이' 묻는데 '어찌하여 대답이'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,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 ② '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'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,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 ③ '물을 사람이 없어' 계집에게 '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'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,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.
 ④ '이 노릇을 어찌하여야'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,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 ⑤ '어정쩡하게' 말하려다 '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'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,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
[1~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-2022.09 [18~21]

〈보기〉

『배비장전』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,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.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?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,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.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,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.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.

✓ 읽기 전 활동

배 비장은 처음에 창피를 당했지만, 결말에 가서는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배 비장이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배 비장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어봅시다.

[앞부분의 줄거리]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,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.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.

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냐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,

“여보게, 이 사람. 말씀 물어보세.”

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,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물었다.

“이 사람,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?”

“무슨 말이람나? 양반, 양반, 무슨 양반이야.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.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염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, 짜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?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? 참 듣기 싫군. 어서 가소.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, 어서 바빠 가지라구!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궤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?”

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,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.

“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!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다면 좋을 것을,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,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!”

하며,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마는,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‘불은 데 불으라’ 하는 말과 같이 ‘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.’ 하여,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.

✓ 필수적 독해 태도

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

② 인물의 심리·태도 파악하기

배 비장은 애랑 때문에 창피를 당한 후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서울로 가기 위한 배를 찾는 상황에서 배 비장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하대하다가 계집에게 욕을 듣게 됩니다. 배 비장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에 이 섬에 오지 말았다면 좋았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서울로 가야 하니 아까 말싸움을 했던 계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떠나는 배가 있냐고 물어보려 합니다.

“여보시오,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습니다. 이곳 풍속을 모르고.”

“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?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.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?”

“네,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,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.”

“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,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?”

“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,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,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,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.”

“그러하면 가이없습니다.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,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.”

“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?”

“참 딱한 일이올시다.”

하더니,

“옳지!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.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**조그마한**

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.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,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.”

✓ 필수적 독해 태도

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

말을 고쳐 묻자 상대도 공손하게 대답해 줍니다. 배 비장은 배가 있냐 묻자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났다고 합니다. 배 비장은 부모의 병환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니 계집은 가는 배가 하나 있다고 하지만 그 배가 행인을 태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. 아무튼 언덕 밑에 배가 있다 하니 가보라고 합니다. <보기>에서 언급된 배 비장이 상대를 존중하는 경험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.

“어이, 뱃사공이 누구여?”

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,

“어! 사공은 왜 찾아?”

“말 좀 물어보면…”

“무슨 말?”

“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?”

“물로 가는 배여.”

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‘해라’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,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, 한숨을 휘쉬쉬하며,

“히!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!”

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,

“여보시오,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?”

사공은 목낭청*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,

“그렇습니다.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.”

“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?”

“예,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.”

“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.”

“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신는 배가 아니옵고,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,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.”

“그는 그러하겠소마는,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,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,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, 한편 이물 구석에 조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시오?”

“당신 정경이 불쌍하오.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,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.”

- 작자 미상, 「배비장전」 -

* 목낭청 :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

✓ 필수적 독해 태도

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

배 비장은 계집이 알려준 곳으로 가 사공에게 말을 겁니다. 하지만 또 습관적으로 하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. 바로 반말로 말을 거는 모습입니다. 사공에게 제대로 대답을 받지 못하자 배 비장은 자신이 또 실수를 했다며 자신의 언행을 뉘우칩니다. 다시 공손하게 말을 묻자 사공도 공손하게 대답해 줍니다. 이 배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는 배라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합니다. 배 비장이 부모 병환이 급하다 하자 사공은 배 비장을 불쌍하게 여겨 부인 모르게라도 타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.

#작품 총평

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. 배 비장이 말실수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. <보기>에서 본 배 비장이 상대를 존중하는 경험을 한 것이 작품의 주요 포인트입니다.

1.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정답 : ④

① ‘계집’은 ‘배 비장’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.

→ ‘계집’은 ‘배 비장’이 양반이 물으면 대답이 없냐는 말에 양반이면 예의도 모르고 초면에 반말을 해도 되냐며 ‘배

비장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② ‘배 비장’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‘계집’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.

→ ‘배 비장’은 성함을 묻는 ‘계집’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고 부모 병환 기별이 급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.

③ ‘계집’은 ‘배 비장’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→ ‘계집’은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있는 배에 가서 물어보라며 ‘배 비장’에게 배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

④ ‘사공’은 ‘부인’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.

→ ‘사공’은 ‘부인’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‘부인’의 허락 없이 태울 수 없다는 것이지, 낯선 이에 대한 경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. ‘사공’이 ‘배 비장’을 경계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.

⑤ ‘사공’은 ‘배 비장’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.

→ ‘사공’은 ‘배 비장’이 부모 병환이 급해 배를 탈 수 없다는 말에 불쌍하다며 부인 몰래라도 배를 태워주겠다고 합니다.

2. ㉠~㉡ 중 ‘배 비장’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?

정답 : ④

- ㉠ 여보게
- ㉡ 이 사람
- ㉢ 여보시오
- ㉣ 어이
- ㉤ 노형

- ① ㉠, ㉡ ② ㉠, ㉣ ③ ㉡, ㉣
- ④ ㉢, ㉤ ⑤ ㉣, ㉤

→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. 이에 해당하는 표현은 ㉢와 ㉤입니다. 나머지 부분은 상대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3. [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]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정답 : ③

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.

→ 주인공은 부모의 병환 소식 때문에 이 배를 타려고 합니다.

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.

→ 이 배는 본래 부인만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배입니다. 주인공은 이 배에 타려고 합니다.

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.

→ 주인공은 부모 병환이 급해 빨리 서울로 가기 위해 이 배를 타려고 합니다. 정답입니다.

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.

→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.

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.

→ 이 배는 행객을 본래 태우지 않는 배입니다.

4. 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정답 : ④

〈보 기〉

『배비장전』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,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.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?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,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.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,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.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.

① ‘양반이’ 묻는데 ‘어찌하여 대답이’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,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
→ 배 비장은 ‘양반이’ 묻는데 ‘어찌하여 대답이’ 없냐며 계집을 나무라고 있습니다. 이는 배 비장이 자신이 양반인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고 상대에 비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② ‘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’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,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
→ 배 비장은 구식적 습관으로 계집을 ‘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’ 하고 있습니다. 이는 배 비장이 자신이 양반이기에 지방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하대하는 것입니다. 제주 사람들을 얕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③ ‘물을 사람이 없어’ 계집에게 ‘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’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,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.

→ 배 비장은 계집에게 욕을 먹은 후 계집에게 ‘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’고 하고 있습니다. 이는 배 비장이 계집말고는 ‘물을 사람이 없어’ 계집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사과를 하고 다시 말을 건넨다는 선택을 한 것

이라 볼 수 있습니다.

④ ‘이 노릇을 어찌하여야’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,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
→ ‘이 노릇을 어찌하여야’ 좋겠냐는 부분은 서울로 가는 배가 어제저녁에 다 떠난 상황에서 배 비장이 하는 말입니다. 현재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 제주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

⑤ ‘어정쩡하게’ 말하려다 ‘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’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,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
→ 배 비장은 사공에게 ‘어정쩡하게’ 말하다가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고 ‘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’며 자신의 언행을 뉘우치고 있습니다.